“호르무즈 기여해야” “北제재 예외 인정을”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美 호르무즈 파병 압박 관측
방위비 협상 진전 독려
대화 재개 대북 긴밀공조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한반도 정세 및 동맹 현안, 역내 및 최근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다.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미일, 미일,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연쇄적으로 열려 한미일 및 양자 간 공조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동 정세 악화와 맞물려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역설,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한국 측에 압박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에 담긴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 ‘예외인정 사업들’에 대해 미국측과 논의하고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며 일각의 한미간 인식차 우려 등에 대한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쇄회담은 북한이 ‘충격적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며 새로운 전략무기의 도발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미·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한미, 한미일 회담은 팰로앨토 포시즌스 호텔에서 각각 약 50분씩 진행됐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한반도 문제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동력 유지, 북미 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한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 하고, 이 지역내 평화·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같이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핵 문제 관련 3국간 협력방안 및 역내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및 중동내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 한미일 공조와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위태해지고 불안정이 야기되면 유가가 상승하고 국제경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며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측면을 들어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이러한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경제적인 스테이크(stake·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다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도 70%의 원유 수입을 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뜻에서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개별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등을 포함한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폼페이오 장관과 논의했다.

강 장관은 “우리로선 그간 남북 간의 중한 합의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제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외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관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가지 의견을 나눴으며 미국 측에서도 우리측의 의지와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큰 틀에서의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양 장관은 한미가 이견의 폭을 좁혀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워싱턴DC에서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협상팀이 협상을 지속해 진전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자는 의견교환을 했다고 당국자가 밝혔다. /연합뉴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65㎞ 떨어진 탈(Taal) 화산이 폭발한 지 사흘째인 14일 바탕가스 주 타나운에 마련된 대피소에 주민들이 피신해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화산폭발 장기화 우려
호흡기 질환자 속출…마스크 품귀

지난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탈(Taal) 화산 폭발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레나토 솔리둠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 소장은 전날 “이전에 발생한 탈 화산 폭발이 몇 달간 지속됐다”면서 “현재의 화산 활동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솔리둠 소장은 “그러나 폭발적인 분출 가능성에 대한 경보는 아마 몇 주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탈 화산섬과 인근 지역 주민과 관광객 3만여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고, 반경 14㎞ 이내 주민 5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지난 14일에도 용암 활동이 계속되고 높이 800m의 짙은 회색 증기가 분출됐으며 화산재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인근 지역에 계속해서 떨어졌다.

또 분화구 주변에서 다수의 균열이 새로 나타나고 화산 지진이 이어지는 등 더 크고 위험한 폭발이 발생할 징후를 보였다.

지난 12일 폐쇄됐던 마닐라 공항은 13일부터 부분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지만, 아직 정상화하려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 학교는 15일에도 휴업했다.

탈 화산 폭발로 1911년과 1965년에 각각 1천300명, 200명이 사망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고, 우리나라 교민 피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산재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하고 방진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마추픽추 신전서 배변 ‘무개념 관광객’

페루 경찰 20~30대 6명 체포

페루의 세계적인 유적지 마추픽추의 신전에서 ‘볼일’을 본 무개념 관광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현지시간) 페루 안디나통신에 따르면 페루 쿠스코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마추픽추 ‘태양의 신전’ 내의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서 관광객 6명을 발견해 체포했다.

11일 밤 통제구역에 몰래 들어간 이들은 신전 벽의 돌 파편을 떨어뜨려 바닥에 균열이 생기게 한 것도 모자라 신전 안에서 대변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들은 남자 4명과 여자 2명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인 각각 2명과 프랑스, 칠레인 1명씩이다. 모두 20~30대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조사한 후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아르헨티나 남성은 문화재 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추방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문화재 훼손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면 이 남성에게는 4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AFP는 설명했다.

15세기 잉카 문명 유적지인 마추픽추는 1911년 미국 탐험가에 의해 처음 발견된 후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적인 관광지다.

2004년엔 칠레인 2명이 마추픽추 벽에 낙서했다가 6개월간 옥살이를 한 후 벌금을 내고 풀려났고, 2017년에도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관광객이 낙서해 체포됐다. /연합뉴스

美 LA공항 근처 학교에 항공유 쏟아져

초등학생 등 26명 부상
항공당국 적법 여부 조사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 인근 초등학교에 14일(현지시간) 날아가는 비행기의 항공유가 쏟아져 운동장에서 놀던 학생 17명과 성인 9명이 다쳤다고 CNN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사고는 이날 정오 무렵 LA공항에서 동쪽으로 30㎞ 떨어진 파크 애비뉴 초등학교 운동장에 항공유가 쏟아지면서 일어났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비행기에서 항공유가 지상으로 뿌려진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친 학생들은 위험물질 처리반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유튜브에 올라온 현장 영상에는 비행기 날개에서 하얀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액체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잡혔다.

FAA는 LA에서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델타항공 89편 항공기가 엔진 이상을 일으켜 LA공항으로 회항하는 과정에서 중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항공유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델타항공 대변인은 “이륙 직후 엔진 문제가 있어 비상대응 수칙에 따라 항공유를 버리고 비상착륙을 시도한 것”이라며 “해당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말했다.

연방항공청 관계자는 그러나 “항공기에서 항공유를 투척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비상착륙을 시도하는 비행기는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은 지역에 항공유를 버리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주 산불 연기로 멜버른 공항 활주로 봉쇄

항공편 취소·이착륙 지연 혼란

호주 빅토리아주 이스트 깁슬랜드 지역 산불 연기 때문에 멜버른 공항 활주로가 봉쇄되고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15일 (현지시간) 호주 전국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인터넷판에 따르면, 멜버른 공항은 산불 연기로 인한 짙은 연무로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져 두 개의 활주로 중 하나는 봉쇄하고 다른 하나만 운용하고 있다.

짧은 가시거리·짙은 연무에다 강풍까지 겹쳐 항공편 수십편이 취소되고 이·착륙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멜버른 공항 대변인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 때문에 여러 일정이 취소됐다”면서 승객들은 공항에 오기 전에 먼저 항공사를 통해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호주 항공 서비스 측은 “오전 9시 30분에는 1천 500m에 불과하던 가시거리가 2천m까지 호전됐으나, 여전히 항공기들이 상공에서 10분 이상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최대 항공사인 콴타스항공에 따르면, 항공 교통량이 많은 노선인 시드니·멜버른 항공편들이 가장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후부터는 비와 함께 서늘한 날씨가 예상돼 멜버른을 덮고 있는 연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